

문서에 언급된 주요 연도 및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도/시기	사건 및 주요 내용	출처
460만~250만 년 전	독도 화산 활동으로 탄생 (화산섬)	
1454년	한국 사료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기록	
1531년	한국 관찬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우산도(독도) 기록	
1667년	일본 사료 은주시청합기에서 울릉도(다케시마)와 독도(마쓰시마)가 조선 땅임을 명확히 함	
1693년 3월	1차 안용복 사건 발생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에게 납치)	
1696년	2차 안용복 사건 발생 및 일본이 울릉도/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하며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림	
1779년	일본의 개정 일본여지로정전도에서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나타냄	
1785년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삼국점양지도에서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과 동일한 황색으로 표시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을 내림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이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석도)를 울릉군수의 관할 구역으로 명확히 지정함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다케시마’로 개칭하고 현에 편입시킴	
1946년 1월 29일	연합군최고사령관 지령 <SCAPIN 제677호>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함	
1951년 1월 18일	한국 정부가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선언’ (이승만 라인/평화선)을 선포하여 독도에 대한 주권 행사를 명확히 함	
1951년 9월 8일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최종 조약문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시되지 않음	
1953년 9월	독도경비대가 독도에 상시 주둔하며 활동 시작	
1965년 6월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기본조약 체결 시 독도 문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함	
1981년	최초의 독도 주민 최종덕이 주민등록을 독도로 이전하여 독도를 유인도로 만듦	
1998년 9월	신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독도 주변 12해리를 제외한 중간수역(잠정수역)이 설정되면서 갈등이 재점화됨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 의회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기념하여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 로 제정하는 조례를 결정함	
2008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 라고 가르치도록 공식 주문함	

이 표에서 보듯이, 독도를 둘러싼 역사는 고대 기록부터 현대의 외교적 갈등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17세기 안용복 사건과 20세기 초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는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입니다.